

칼럼

임진년 元트에



김흥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검은색을 뜻하는 임(壬)과 용(龍)을 의미하는 진(辰)이 결합된 2012년은 '흑룡의 해'로 불린다. 우리네 일상에서 변변치 못하던 사람이 크게 좋아졌을 때 흔히 '용 났다'라고 하듯이 용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돌아해보면 지난 2011년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차츰 회복되던 세계 경제는 2011년 들어 유로존의 재정 위기, 미국 경제의 더블 딥,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과 같은 먹구름이 다시 짙어지기 시작했다. 1/4분기에 4.2% 성장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국내 경제도 2/4분기부터는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마저 4% 내외의 고공 행진을 지속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건설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2010년 7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1년에는 선진국의 재정 위기, 리비아 사태 등의 여파로 100억 달러 이상 급락했다. 200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국내건설 수주는 그나마 기저효과에 힘입어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주택시장도 지방은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도권은 미분양이 적체되고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꽁꽁 얼어붙었다. PF 부실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몇몇 중견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안타까운 소식마저 이어졌다.

2012년에는 건설산업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흑룡'처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국제 경제 여건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먹거리를 앗아

서 기다리는 천수답(天水畝)식 경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제는 건설기업을 비롯한 건설산업 주체들이 신성장 동력 발굴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은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기존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성숙기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장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민간은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녹색 건설, 고령화 사회, 융복합화, 심지어는 보편적 복지과 같은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 속에서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과거 건설산업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의 고도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이제 건설산업은 3만 달러 복지 국가 실현에 기여하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에 기여한 주택부문 역시 향후에는 주거의 질적 수준과 주거 복지 향상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거시경제적 여건이나, 변화하고 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환경을 생각하면 2012년 임진년 한 해도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 온 뒤 땅은 더욱 굳어지는 법이며, 지금까지 우리 건설산업이 극복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없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도록 시스템을 변화 발전시키고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해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임진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CERIK